



## 붉은 말의 봄마중... 도심서 대보름 흥 되살린다

내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희경루서 세시풍속 진행  
광주농악보존회 길놀이 공연·연화... 전남서도 당산제 등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떠오르는 정월대보름.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정월대보름에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먹고, 부럼을 깨물며 한 해의 무병무탈을 기원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달빛 아래 소원을 빌던 공동체 정신이 율해지는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되살아난다. 광주문화재단은 병오년 정월대보름(3.3)을 맞아 28일 전통문화관과 희경루 두 곳에서 대보름 특별행사를 갖는다. 무형유산 보유단체의 길놀이 공연부터 기능

보유자와 함께하는 체험, 민속놀이와 세시풍속 체험까지 두 공간의 색깔을 살려 대보름의 의미를 되짚는다. 먼저 이날 오후 1시 전통문화관에서는 토요상설공연 특별 기획행사 '병오년 대보름, 붉은 말의 봄마중'이 펼쳐진다. 또 광주시 무형유산 보유단체 광주농악보존회가 팽과리·장구·북·징의 풍물 가락과 함께 전통문화관 일대를 행진할 기획공연 '붉은 말의 길놀이'로 행사의 문을 연다. 방문객 모두의 만복과 평안을 기원하

는 대보름의 첫 울림이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너털마당에서 광산농악보존회가 진행하는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버나들리기와 널뛰기, 윷놀이 등 세시풍속과 어울리는 전통 민속놀이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같은 시간 숲을대문 일대에서는 나주 전래놀이문화연구회 솔레가 매난국죽(梅蘭菊竹) 놀이 한마당을 펼친다. 매(梅)·난(蘭)·국(菊)·죽(竹) 네 개의 마당을 돌며 비석치기와 투호, 참고누, 공기놀이, 물키, 방패연 만들기(30개 한정)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스탬프를 모아오면 한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소원 나무 마당에서는 북주머니

모양 소원지에 새해 소망을 적어 농신대에 매달고, 시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명화장 송광무씨가 직접 그린 세화를 나눠 받을 수 있다. 행사는 '봄마중 인사'로 마무리된다. 시민이 함께 소원지 중 일부를 함께 낭독하며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내 더위 사가리"를 외치면서 대보름의 흥을 나눈다. 희경루에서도 오후 2시 대보름 잔치 '비우고, 막고, 채운다'가 열린다. 풍물패 길놀이 공연으로 잔치의 막을 올린다. 올해 주제는 '걱정은 비우고, 나쁜 것은 막고, (바람은) 채운다'다. 대보름 세시풍속에 담긴 '액'을 먹고 소망을 채우는' 의미를 묵은 걱정을 쓸어내는 미니 빗자루 만들기, 시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임

종철과 함께하는 액막이 명태 만들기, 새해 소망을 담은 소원지 쓰기 등 세 가지 체험으로 풀어나간다. 잔디마당에서는 고구려 벽화 속에서 되살아난 버나들이, 죽방울놀이, 죽마놀이, 윷놀이,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 전통 연희와 민속놀이가 준비된다. 이와 함께 오후 4시 20분에는 버나 공연과 큰기놀이로 이어 출연진과 시민이 손을 맞잡고 함께하는 강강술래로 대미를 장식한다. 방문객이 작성한 소원지는 대형 깃발에 걸려 광장을 채우고, 그 아래에서 원을 그리며 한 해의 평안을 축원한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 대보름은 전통문화관과 희경루, 두 공간이 각각의 색깔로 세시풍속을 펼치는 만큼, 시민들이

두 곳을 오가며 대보름의 의미를 온전히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두 행사 모두 무료로 운영되며, 광주시민은 물론 내·외국인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통문화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주문화재단은 '나주읍성 사창(司倉) 거리 당산문화제'를 3월 2일 오전 11시에 열고, 순천시 순천만전망대는 정월대보름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개기월식'을 맞아 시민들을 위한 특별관측 및 교육 프로그램인 '2026 Red Moon: 순천만의 붉은 밤'을 진행하는 등 전남 곳곳에서도 관련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상처 입은 존재들이 전하는 연대·희망의 메시지

임성규 장편동화 '붉은 여우 흥비' 출간  
전래동화 '구미호' 현대적 재해석 시도



전래동화 '구미호'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한국형 판타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화가 나왔다. 한국의 멸종 위기종인 '붉은 여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우리 옛이야기 속 구미호 설화를 현대적 판타지로 재탄생시킨 임성규씨의 장편동화 '붉은 여우 흥비'가 도토리숲 문고 10번째 권으로 출간됐다. 전래 동화 속 '구미호'와 '여우 구슬'이 생명과 치유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설정을 하고 있는 이 장편동화는 기후 위기 시대, 상처 입은 존재들이 전하는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성장 동화로 이해하면 된다. 주제의식은 성장, 가족, 기후, 숲, 구미호설화, 판타지동화, 치유, 생태, 정체성, 나눔, 희망 등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작가는 설화 속 '여우'와 '구슬' 모티브를 빌려 독창적인 세계관을 구축했다. 전래 동화에서 인간을 홀리거나 해치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여우는, 이 작품에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가족을 지키는 따뜻한 생명체로 그려진다. 또 사람의 정기를 빼앗던 '여우 구슬'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생명의 증표이자

기억을 담은 소중한 그릇으로 재정의됐다. 이런 설정은 어린 독자들에게 우리 고유의 정서를 전하는 동시에, 익숙한 이야기를 새롭게 바라보는 문학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야기의 갈등은 붉은 여우 '흥비'가 사라진 아빠와 형을 찾아 '기억의 숲(청림)'을 떠나며 본격화된다. 흥비가 마주한 세상은 감정과 기억을 제거해야 할 오류로 규정하고 통제하는 '무연'의 지배 공간, '흑림'이다. 무연은 동물들의 기억을 강제로 추출해 '구슬'로 만들고, 이를 인간에게 주입해 고통없는 질서를 세우려 한다. 작가는 생명력이 넘치는 '청림'과 인공적이고 삭막한 '흑림'의 대비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 문제를 날카롭게 형상화했다. 작가는 기억이 지닌 힘을 바탕으로 '치유'와 '연대'의 의미를 전한다. 주인공 흥비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려 하지만, 선유·이레·수리·노아와 함께하며 점차 성장한다. 특히 자

신의 생명과도 같은 여우 구슬을 나눠 죽어가는 친구를 살려내는 장면은 경쟁이 아닌 '나눔'과 '희생'이야말로 생명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임을 감동적으로 드러낸다. '구미호' 설화를 재해석한 깊은 서사와 강한 필체의 그림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이는 이 장편동화는 잊힌 숲과 인간 도시 사이, 잃어버린 가족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붉은 여우 소년 흥비가 구슬의 힘과 친구들의 연대로 흑림의 망각을 막아낸다는 스토리다. 임성규 작가는 서두를 통해 "'붉은 여우 흥비'는 판타지이지만, 결국 성장의 이야기다. 형과 아버지를 잃고 숲을 떠난 작은 여우 흥비가 기억을 잃을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지켜나가는 여정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두려움과 선택의 은유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모험의 즐거움과 더불어 잊히지 않으려는 마음, 함께 기억하려는 연대의 힘을 전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편동화는 '2025년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그림은 장애인 화가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박희선씨가 맡았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루미·똥이' 캐릭터,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순천시, 상표권 등록 추진...IP 비즈니스 산업 본격화



순천시는 '루미·똥이(이하 루미똥이)' 캐릭터의 독자적인 상표권 확보와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루미똥이는 지난해 CJ ENM과 협업을 통해 '순천을 사랑하는 호기심 많은 요정'이라는 매력적인 세계관과 친숙한 비주얼로 재탄생했다. 시는 루미똥이를 단순한 지자체 상징물을 넘어, 민간 시장에서도 통하는 고부가가치 IP(지식재산권)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연자로 6에 개점한 루미똥이 캐릭터 상점에는 설 연휴 기간에만 500여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그 인기를 증

명했다. 현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루미똥이의 귀여운 비주얼은 물론, 저렴한 가격대와 높은 실용성을 갖춘 다양한 굿즈 라인업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오픈 라이선싱(Open Licensing)' 정책도 추진한다. 순

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간단한 사용승인 절차만 거치면 루미똥이를 활용한 상품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IP 사용승인 진입장벽을 낮춰 수익 창출과 콘텐츠 재생산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총 45건의 사용승인이 이뤄져, 루미똥이가 기념품·포토존·버스 랩핑 등 다양한 굿즈 및 공간 디자인으로 새롭게 선보이며 시장성을 입증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캐릭터 상품의 흥행과 리브랜딩 성과를 통해 루미똥이는 대중에게 다가가 준비된 IP임이 증명됐다"며 "이번 상표권 등록과 함께 온라인 스토어 추가 개설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순천시 콘텐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브랜드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순천=백철식 기자 2556pk@gwangnam.co.kr



순천 루미·똥이 캐릭터 매장 내부 모습